

곡성군,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내년부터 본격 운영

관리동·시설하우스 5동·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등 설치

ICT 스마트온실·지역특화작목·대량 미생물 배양장 등 조성 완료

곡성군은 과학영농으로 현장에 기술 해결과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농업육성 기술보급의 핵심기지가 될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군은 곡성을 신월리 181-25번지 일원 12,505㎡ 부지에 지난해 착수하여 관리동, 시설하우스 5동,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치유농업 텃밭정원 등을 설치하였다.

시범포는 우리 군의 특화품목 밭고추

농업인 현장 교육을 비롯하여 유치원·초·중학생 진로체험 및 견학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범포에는 체리, 블루베리, 단감 등 과종별 수신휘종을 식재하였고, 채소류인 딸기, 토란, 단염마늘, 양파 등도 재배시험 중이며, 내년에는 전문가 초청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연간 400톤 생산 규모의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장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및 축사악취 저감에 필요한 농업미생물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1~2022년까지 연면적 990㎡ 2층규모로 농산물중합가공센터를 HACCP 인증 공동이용 가공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역량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을 육성하



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기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신소득작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

대, 선진농업육성 기술보급 등 과학영농시설을 집적화하여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포 단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나주시, 내년도 동강 9개지구 지적재조사

26개마을 8600필지 대상

나주시가 동강면 일대 9개 지구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공부를 3차원 디지털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

지적도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실제 이용현황대로 측량하고 지적도를 정리함으로써 시민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9억원을 확보, 동강면 일대 9개 지구 8600필지(539만9099㎡)에 대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수립 이후에는 주민공람(30일)과 26개 마을단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및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해 지적재조사 관련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올해 11개 지구 8,000여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꼼꼼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해소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전국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확실성을 바로잡으면서 마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만큼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우수단체 선정

2019회계연도 대상...특별교부세 10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

여한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2377개 기금이 대상이다.

화순군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324억9200만 원을 조성했다.

기금 사업비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회수채권 비율은 0%로 기금운용 건전성을 강화, 9개 지표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우수단체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 총 3개 분야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타 회계 의존율 등 9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교차검증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준비 완료

주요 간선 및 산간도로 등 취약노선 제설대책 수립



기상청이 올해 강한 추위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나섰다.

먼저 군은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 시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내 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 농도 등 175개 노선 834km 구간에 제설대책반을 운영,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강설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상황에 따른 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군과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비하고, 도로 제설 작업구간 및 방법, 건의사항에 대해 긴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군은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138명의 인력과 제설차량 7대, 굴삭기 2대, 행정차량 12대, 민간 보급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76대, 1톤 트랙 부착형 11대 등을 확보해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제설용 소금 500톤, 친환경 제설제 150톤 등을 확보하고 적사함 168개소를 배치해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은 행정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주민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며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내 집, 내 골목, 내 점포 앞 등 눈 치우기 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그린뉴딜 꽃채운 전문가 양성

구례군은 천혜 자연과 야생화를 접목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그린뉴딜 꽃채운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난 6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일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총 11회 동안 실시하고, 이번 20명의 교육 대상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였다.

꽃채운이란 '꽃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우리말로, 이번 교육에서는 야생화

500여종과 화훼류(花卉類) 100여종을 기초부터 고급관리 기술까지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그린뉴딜 도시재생과 색향미 야생화를 응축한 실증교육·도시정원과 화단 만들기 등에 대한 노하우·다양한 화훼류로 사람 발길을 붙잡는 골목길 만들기·꽃 사진 교육 등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구례=박진호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